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홍물 신세 덕수리 민속공연장**

지붕 파손 불미공에 상설공연장 방치

2009년 도비 등 5억원 투입
2년 전 여름 태풍 피해 겪어
도지사 방문에도 복구 감감
마을만들기로 인프라 확충
기존 시설 점검도 동반돼야



불미공에 상시 재현장으로 조성된 덕수리 민속공연장이 2018년 여름 태풍으로 지붕이 파손된 이래 방치되어 있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종목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주철로 솔과 보습을 제작하는 공예기술인 덕수리 불미공에, 운반노동요인 방앗물 굴리는 노래가 1986년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 전승되고 있다. 2009년 제주조각공원 인근에 상설 민속공연장이 생겨난 이유다.

무형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마을의 특징을 살려 만들어진 민속공연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태풍 솔릭의 내습 이래 공연장 지붕 일부가 뜯겨나간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공연 소품 창고 둔갑=덕수리 민속공연장은 도비 4억 5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을 들여 지어졌다. 불미공에 종목을 중심으로 상시 민속공연이 가능하도록 지붕을 덮었고 무대와 관람석도 별도 조성했다.

하지만 건립 취지와 달리 불미공에 재현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시연에 필요한 재정 마련 등을 이유로 종전처럼 연1회 덕수리 전통민속축제 기간에 맞춰 재현 행사를 벌인 일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불미공에는 보유자가 공석인 상태로 명예보유자 1명, 전수장학생 2명을 두고 있다. 마을 주도로 전승 활동을 펼친다고 해도 이대로라면 전승 체계

가 취약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8년 태풍으로 공연장 지붕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덕수리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한 일이 있지만 복구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된 민속공연장에는 근래 방앗물 굴리는 노래에 쓰이는 장비를 포함한 공연 소품들만 쌓여 있었다.

▶34억 들인 마을만들기 별도 진행=마을회 관계자는 “제주도에 건의하고 국회의원을 통해 요청했지만 피해 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지붕 철거에만 2억원이 든다고 하니 마을에선 손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을 사람들이 생업을 핑계치고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기 힘들다”며 “공연장은 당장 보수 못해도 공모 사업 등으로 불미공예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미공에 공연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최근엔 기부채납해 실내 전수관으로 리모델링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마을의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문화재 부서는 마을 재산이니 방도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어졌고 관련 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직영이나 민간 위탁 전수관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이 지역에서 도비와 국비를 합쳐 34억원이 투입된 창조적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나섰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진행된 덕수권역 사업은 마을이 보유한 전통 민속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북카페, 문화센터, 민속마을 갤러리, 떡거리 체험장 등을 꾸렸다. 마을에 문화 인프라가 느는 만큼 민속공연장과 같은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전선희기자**

각별한 시대, 각별의 그날, 특별한 일상

제주현대미술관 오늘부터
연례 지역네트워크 교류전
박정근·이경희·이지유 참여



박정근의 '잃어버린 마을'.

한 시대 속으로 걸어 들어가 몸을 부대끼며 만난 풍경들이 각기 다른 시선에 담긴다. 그들의 눈은 20세기의 문을 열어젖히는 시기의 제주민중항쟁에서 이 땅의 미군기지까지 닿는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제주현대미술관(관장 변종필)에서 오늘(2월 18일)부터 열리는 '각별한, 각별한, 특별한' 전이다.

올해 첫 기획전이면서 연례적인 지역네트워크 교류전으로 창작 배경과 활동 영역이 다른 3명이 참여한다.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박정근, 개인적 사연에 제주 역사를 포개 열정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지유, 장소를 탐색하는 작업을 펼쳐온 이경희 작가다. 이들은 제주에서 행하는 예술 교류를 통해 창작 세계를 확장하며 회화, 사진, 영상 등

모두 합쳐 40여 점을 선보인다.

이지유는 1901년 '이재수의 난'을 소재로 상실한 기록과 기억 사이에서 망각된 시간과 존재를 불러낸다. 박정근은 해방 전후 벌어진 제주4·3 희생자 유족의 초상 연작에서 이념을 건너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원된

일상과 새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이경희는 지역민과 미군이 맺은 사회적 관계와 그 의존 형태로 또 다른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미군기지 마을의 삶의 형태를 포착했다. 전시는 5월 24일까지. 문의 064)710-7807. **전선희기자**

서귀포 무병장수의 별 해설사 키운다

내달 탐라문화유산보존회
노인성 해설사 양성 교육

별 해설사 양성은 2020년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활용사업인 '무병장수의 도시 서귀포, 떠오르는 남극노인성' 시행에 앞서 이루어진다. 3월 2-6일 진행되는 양성교육은 고천문학자 김일권 박사를 초빙한 동양 별자리 28수와 한국 고천문학의 이해를 비롯 전통 제례로 이어온

남극노인성제의 의의, 남극노인성의 역사적 가치, 별해설 실무와 스토리텔링법 등으로 짜여진다. 마지막 날엔 1968년 남극노인성 관측용으로 세워진 삼매봉 남성정(南星亭)을 찾는다.

수료자에게는 별도 자격증이 주어지고 탐라문화유산보존회 별 해설사로 참여하면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수강 신청 연락처 064)739-2017.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서귀포문화' 23호 발간

제주청하문학회 작품집

양재봉씨 두 번째 수필집

서귀포문화원(원장 강명연)이 '서귀포문화' 23호를 묶었다.

특별기고로 '서귀포, 이중섭과 함께 다시 날아오르자'(정준모),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신승훈)를 실었다. '향토사의 조명'에서는 '대정, 아직도 먼 길인가'(김용철), '혼인지 마을과 서민혼례'(정순호)를 실었다. '마을문화 탐방'에서는 '성읍 전통 장례의식'(송심자), '효돈 행복공동체 효돈중학교'(현민)를 소개했다.

제주청하문학회(회장 신상범)가 '제주청하문학' 3호를 내었다.

이번 호는 김수애의 '추억' 등 회원시와 김봉오의 '한라산 불로초 영지' 등 회원 수필만이 아니라 도내의 작가들의 초대 작품이 풍성하다. 초대 시로 김순이의 '이름을 지우며', 나기철의 '금붕어 눈', 윤석산의 '사실은 내 잘못이더군요', 허영선의 '뺨도 심장도 튼튼해지는 물의 나라'를 소개했다. 김순신, 변광욱, 허상문의 초대 수필도 담았다.

양재봉 수필가가 두 번째 수필집 '다독이는 소리'(내내로전자출판)를 냈다.

동생의 죽음, 가난, 자퇴 등 어린나이에 한꺼번에 밀려든 인생의 쓴 파도를 맞으며 삭이고, 삼키고, 키우기 위해 글을 썼다는 양 수필가는 60여 편에 그 마음을 실었다. 김길웅 수필가는 작품마다 담긴 진정성을 읽으며 "그의 수필은 어느 한 편 자신이 몸으로 부딪쳐 얻은 체험 아닌 게 없다"고 했다.

새봄보다 먼저 온 들꽃들의 속삭임

한라야생화동호회 정기전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전시

코로나19 우려에 여러 모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문화 동네도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피하기 일쑤다.

매년 3월 들꽃사진전을 열어온 한라야생화동호회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온라인 전시로 방향을 돌렸다. 그동안 준비해온 정기전을 취소할 수 없어 직접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만나는 대신 인터넷 공간에서 회원 작품들을 보여주기로 했다.

다음 카페에 '한라야생화 온라인 전시회장'을 입력하면 찬 계절에도 생명을 틔워내는 들꽃들을 감상할 수 있다. 회원 21명이 촬영한 184여 점을 게시했다.

당초 3월 1-4월 30일 온라인 전시장이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기간이 빨라지면서 개통 시기를 앞당겼다. 지난 16일부터 사진들을 올려냈고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4월 말까지 언제든지 관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선희기자**



태양광 발전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